

유인촌도 필요성 인정한 '국립근대미술관'



홍경안 의
시시일과

23일 '국립근대미술관' 건립을 위한 세미나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한국예술인총연합회와 국립20C(근대)미술관을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 등이 공동 주최했다. 미술인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국립근대미술관' 조성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행사는 이원복 전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실장과 다테하타 아키라 쿠사마야요이 미술관 관장의 기조 발제로 문을 열었다. 이들은 각각 '국립근대미술관 존재 이유-한국의 총체적 인식의 장'과 '한국 국립근대미술관 설립을 둘러보면'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근대미술관 건립은 우리 미술의 총체적 이해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할뿐더러, 국내외 새로운 문화 발신의 근원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첫 번째 세미나 발표자로 나선 김복기 경기대 교수는 6·25전쟁을 비롯한 남북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같은 재난 및 인재에 의해 잃어버린 유산의 복원, 디아스

포라 미술의 집결지로서의 국립근대미술관 설립의 당위성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국립근대미술관 기공의 첫 삽을 떠달라고 주문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김한결 미술사학자는 근대미술관이 설립돼 제 소임을 다할 때 비로소 한국의 미술사가 온전하게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 발표는 정준모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이 맡았다. 정 전 실장은 국립근대미술관 컬렉션은 한국미술의 근대성과 예술의 자유를 상징한다고 했다. 청산의 대상인 동시에 보존과 기억의 대상이라는 이중적 태도를 지닌 '근대의 가치'를 정립하고 복원하기 위해서라도 근대미술관 조성은 절실하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근대미술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했다. 기관 형태에 대해선 특수법인의 민간기관으로 하되, 국가가 예산의 일정 부분을 부담하지만, 정부부처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영국의 '비부처 공공기관' 모델을 제안했다. 소장품 확보 방안으로는 기존 공공기관과 이견희 기증 근대미술작품의, 국내외 기증 운동을 제시했다.

미술관 건립 부지 확보에 관한 의견도 꺼냈다. 현재 '이견희미술관' 조성 대상지

로 낙점된 서울 송현동(송현문화공원 내)을 포함해 청와대 여민관과 경호동, 수송부 부지, 그리고 대통령의 무실 격인 서울 지구병원, 청와대 경비를 담당했던 서울경찰청 202경비대 부지 등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정 전 실장은 이견희 기증품을 한데 모은 종합 백화점식 이견희미술관은 한계가 명백한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 이병철 회장과 고 이견희 회장이 수집한 기증 유물 중 근대기 미술품을 가려 국립근대미술관의 기반으로 삼고, 기증자의 뜻을 기리는 차원에서 '고 이견희 기증실'을 설치하자고 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인사들은 국립근대미술관 설립에는 이견이 없었다. 다들 공감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인사말을 통해 근대미술관의 필요성을 설득하고(건립이) 늦은 감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중앙정부의 굳건한 의지와 확약은 물론, 당위성과 설립의 논리가 보다 폭넓게 공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서도 시민의 지지와 동참을 위한 미술계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근대든, 현대든 미술관의 핵심 주체는 시민이기 때문이다. /미술평론가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김지수 섭
김서현 (사업부)

2009년 아이폰이 한국에 들어온 첫 해, 카카오톡을 깔고 친구가 늘어나면 "너도 스마트폰 샀어?" 반가워했다. 당시 카카오톡은 혁명이었다. 귀엽고 친근한 공지와 단출한 기능, 점점 발전하는 성능은 카카오톡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누군가와 돈 걱정 없이 맘껏 연락할 수 있다! 지금은 전혀 다른 기업의 또 다른 플랫폼 명이 됐지만, '틱톡'이라는 메신저도 있었지만 카카오톡의 아성을 넘을 순 없었다. '디지털 디톡스'의 첫 번째가 카카오톡 삭제가 될 만큼 카카오톡이 빠져나갈 수 없지만 탈출하고픈 족쇄가 되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다.

김범수의 카카오 왕국이 붕괴했다. 23일 카카오의 창업자 김범수 경영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구속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고자 SM엔터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 보다 높게 설정, 고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기의 카카오를 구하기 위한 경영채신위원회 위원장인 그가 구속되면서 그룹 컨트롤타워가 사라져 채신에도 차질이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0명의 CEO를 만드는 게 꿈입니다." 과거 김 위원장이 밝혔던 꿈이다. 김 위원장은 꿈을 정말로 이뤄내고야 말았다. 카카오 내에서 수도 없이 많은 CEO가 탄생했다. 회사를 다니며 회사의 지원을 받아 CEO로 다시 태어나는 것, 야망 있는 직장인이라면 꿈꾸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

의 꿈은 결국 카카오와 카카오톡이라는 거대한 독점체제 속에서 골목 상권 몰락과 독점적 지위 남용 등 온갖 오점을 남기며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대기업의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려줬다. 각 개인의 일탈도 담이다.

정채봉 시인의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가 생각난다. 김 위원장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본다. 시 제목은 마음을 말하지만 시의 내용은 잘못된 만남, 조심해야 할 만남, 비참한 만남, 시간이 아까운 만남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란 무엇인지 말한다.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가장 잘못된 만남은/생선과 같은 만남이다/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가장 아름다운 만남은/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seo@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7월 25일 (음 6월 20일) http://www.saju4000.com

- 쥐** 36년생 인생은 여차피 혼자 가는 여행이다. 48년생 겨울은 혼자서는 웃지도 울지도 않으니 지금이라도 노후대비. 60년생 산배의 도움으로 일을 마무리. 72년생 지도에도 없는 길을 개척한다. 84년생 일찍 귀가 술자리에서 실수하게 된다.
- 소** 37년생 협의하여 진행. 독단적인 일 처리로 원망을 듣는다. 49년생 양다리를 접으니 엔지 마음은 편하다. 61년생 초심으로 돌아가서 공부하자. 73년생 손뽌에 뒤통배가 듯이 손조로운 하루가 된다. 85년생 좋은 차를 마시며 여유를 즐긴다.
- 호랑이** 38년생 포기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안정이 눈앞. 50년생 집으로 가는 길이 불편. 62년생 오늘은 모처럼 산들바람이 부니 일이 잘 풀린다. 74년생 재실이 아프면 남의 살도 아프다는 것을 알도록. 86년생 가지 못한 길에 아쉬움을 접자.
- 토끼** 39년생 걱정만 하고 실행은 하지 않는다. 51년생 모심으러 갈 때는 장화는 신어야 한다. 63년생 태양이 떠 있는 한 꿈을 버리지 마라. 75년생 푸른색은 쪽에서 나왔지만 쪽빛보다 푸르다. 87년생 기죽지 말고 새로운 일에 도전 이루어진다.
- 말** 40년생 오늘 일은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라. 52년생 자식이 월급을 나눠주니 고맙다 보람 있다. 64년생 초면의 자리에서 이상의 유혹이. 76년생 부모님 말씀에 어불성설(語不誠說)로 우기지 마라. 88년생 이끼가 끼지 않으면 부지런히.
- 뱀** 41년생 중북이나 삼계탕을 가족과 해 먹자. 53년생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65년생 도박성 투자는 금물. 77년생 중요한 연락이 오니 우편물을 꼭 확인. 89년생 오늘은 온종일 운전이 조심하고 다른 일에도 양보를 하는 것이.
- 말** 42년생 어항 속의 물고기 신세처럼 답답한 하루. 54년생 위기를 대비하여 비상금을 모으지 않으면 후회. 66년생 막연히 기다리기보다 스스로 개척. 78년생 결과를 위해서 기다릴 줄도 알아야. 90년생 푸바오를 보러 가기 위해 여행 계획을.
- 양** 43년생 성과가 있어도 만족하지 못한다. 55년생 아랫사람과 의견충돌을 주의. 67년생 예속에 무용지물(無用之物)인 것은 없으니 기획해보라. 79년생 거짓말 빼고 사랑도 배워가며 하는 것. 91년생 오늘은 예민하다 과민한 반응을 자제하자.
- 원숭이** 44년생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이니 먼저 할 일을 찾자. 56년생 전체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조직에 이롭다. 68년생 욕심이 지나치니 견제를 받는다. 80년생 겉모양만 화려한 것을 동경 마라. 92년생 오늘은 사는 것에 대한 만족감을 느낀다.
- 닭** 45년생 꿈이 있다면 늪지 않는다. 57년생 남편 일에 연중유골(言中有骨)을 상쇄하도록. 69년생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 81년생 먹는 것 갖고 싸우나 돈 갖고 싸우나 다 매한가지 아니겠는가. 93년생 오랜만에 세상이 꽃동산이다.
- 개** 46년생 자동차 타는 먼 여행을 금하고 천천히 행동. 58년생 나이 든다는 것이 때론 고맙기도 하다. 70년생 자식의 잘못은 내가 덮는 것이 순리이다. 82년생 길에도 양보가 있듯이 운전 때 차량 양보. 94년생 지장 기도를 해 보면 기도는 이뤄진다.
- 돼지** 47년생 해뜨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밤. 59년생 조상의 도움으로 거레가 무사히 성립된다. 71년생 자신의 헛된 욕심이 회를 부른다. 83년생 능력 부족으로 좋은 것을 포기하고 마음 아프다. 95년생 사랑이 지나치면 광란이 되니 평정심을 찾도록.

김상회의四季 운칠기삼

나이가 들고 보니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고개가 끄덕여질 때가 있더군요.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은 분이 대화를 나누던 중에 그런 말을 건넸다. 능력이 좋아도 운이 반쳐지지 않으면 일이 잘 풀리지 않더라는 말을 덧붙였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고는 운에 달린 것이라는 의미의 말이다. 능력이 뛰어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데도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반대로 남다른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별로 노력하지 않는데도 남보다 앞서가고 인정받는 사람이 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흔히 운칠기삼이라는 말을 한다. 운이 따라줘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중요한 건 운이 들어오는 시기이다. 운이 아무 때나 들어오는 건 아니다. 사주에 따라 운이 들어오는 시기가 다르다. 어떤 사람은 일이 잘 풀리고 나서 사주를 보니 그 시기가 운이 들어오는 때였다는 걸 뒤늦게 알기도 했다. 운 이상으로 중요한 건 본인의 노력이다. 노력이 없으면 운이 들어와도 힘을 쓰지 못한다. 운칠기삼이라고 하면 오해하는 사람이 있다. 운이 좋은 시기이니 가만히 있어도 일이 잘 풀릴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렇지만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데 운이 들어왔다고 빛을 보는 일은 없다. 기본 전제조건은 본인이 능력을 갖추고 노력하는 자세다. 그런 상황에서 운이 들어오면 날개를 단 호랑이가 된다. 노력이라는 디딤돌과 운이라는 날개가 만날 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나이가 드는 장점은 겸손해진다라는 것이다. 살면서 이런 것들이 자기가 잘나서 또는 자기 능력으로만 얻은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다. 운이 작용했음을 알게 되면 겸손해진다. 능력이 있어도 능력 외의 부분은 운이 좌우한다. 운이 들어오는 시기를 알기 위해 팔자를 살펴보는 것 아니겠는가.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과파를 즐기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480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584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